

AG 2연패 남현희 “펜싱 그만두려 했었다”

☀️ 은퇴 결심까지 했던 숨겨진 사연

소속팀 서울시청 떠나며 혼자서 훈련
미래 불안·스트레스에 은퇴까지 생각
성남시청에 새동지 틀며 부활 구슬땀
플리레 개인전 中 천진연 꺾고 금 영광

남자 사브르 구분질 첫 출전서 금메달

‘한국펜싱의 간판’ 남현희(29·성남시청)의 아시안게임 여자플리레 개인 금메달 뒤에는 한 때 은퇴 결심까지 했던 사연이 담겨있다.

2009년까지만 해도 남현희의 소속팀은 서울시청이었다. 하지만 남현희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제계약 포기를 결심한다. 마땅한 팀이 결정된 것도 아니었다.

남현희는 연말연초, 소속팀도 없이 태릉에서 묵묵히 칼을 잡았다. 펜싱에 대한 열정은 그대로였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했다. 운동을 둘러싼 주변관계에 스트레스가 심했던 남현희는 “펜싱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2008베이징올림픽 은메달의 아쉬움이 그녀를 붙잡았다. 임버릇처럼 “2012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던 남현희였다.

그녀의 재능을 아깝게 여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백방으로 뛰었다. 그리고 결국 성남시청에 새동지를 틀었다.

성남시청은 남현희의 영입과 함께 여자펜싱팀을 창단했다. 조건도 좋았다. 계약금 1억 2000만원, 연봉 7000만원 등 총액 3억 3000만원에 3년 계약이었다. 2012런던올림픽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계약기간 중에 아시안선수권,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에서 입상할 경우 포상금은 별도로 정했다.

이 뿐이 아니었다. 성남시청은 남현희의 세계랭킹 관리를 위해, 연간 4개 국제대회 비용도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펜싱 세계랭킹은 국제대회 성적별로 부여하는 포인트를 합산해 결정하는데, 국제대회에 많이 참가할수록 유리한 조건이다. 트랭커들은 상위 시드를 배정받는다. 남현희는 올시즌 내내 풍부한 국제대회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결국 그 결과가 광주에서 나왔다. 남현희는 19일 광주광역시체육관에서 열린 광주아시아경기 여자 플리레 개인전 결승에서 천진연(중국)을 15-3으로 격파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사브르의 구분질(21·동의대)도 개인전 결승에서 중만(중국)을 15-13으로 꺾고 우승했다. 아시안게임 첫 출전에서 거둔 금 쾌거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도 여자 플리레 개인전과 단체전을 휩쓸었던 남현희는 이로써 이종목 2연패를 달성했다.

남현희는 22일 여자 플리레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에 도전한다. 만일 단체전에서도 아시안정상에 오른다면 2006도하아시안게임에 이어서 2관왕 2연패를 달성한다.

광주(중국) |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한국이 낳은 펜싱의 여제다웠다. 남현희가 19일 광주광역시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펜싱 플리레 결승전에서 중국 천진연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2연패. 광주(중국) | 연합뉴스



이것이 중주국의 발차기 대표팀 막내 이대훈(왼쪽)이 태권도 63kg급 결승에서 태극전수를 상대로 얼굴공격에 성공하고 있다. 광주(중국) | 연합뉴스

金金...또 금빛 발차기

노은실 이대훈 태권도 3~4번째 금
남 68kg급 장세욱은 아쉬운 은메달

태권도가 이를 연속 금 2개를 따내는 금빛 발차기를 해냈다.

광주 아시안게임 태권도 여자 62kg급에 출전한 노은실(21·경희대)은 라헤레 아세마니(이란)를 14-2로 완파하고 정상에 올랐다. 이어 고교생 태권도 국가대표 이대훈(18·한성고)이 남자 63kg급 결승에서 나차폰통(태국)을 10-9로 꺾고 또 다시 금메달 남보를 전했다.

이로써 태권도 대표팀은 18일 여자 57kg급 이성혜와 남자 +87kg급의 허준영(이상 삼성에스원)에 이어 아시안게임 태권도 3~4번째 금을 캐냈다.

그러나 원래 대표로 선발됐던 김응현의 부상으로 아시안게임 출전 기회를 잡은 남자 68kg급의 장세욱(19·용인대)은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 모하마드 바게리 모타메드(이란)에게 4-6으로 저아쉽게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성수연의 행운!

女 복싱 75kg급 7명 출전 8강 직행
부전승으로 4강 진출 동메달 확보

여자복싱대표팀이 한 경기도 치르지 않고 메달을 확보하는 행운을 잡았다. 주인공은 75kg급에 출전한 성수연(18·여주여고).

그녀는 2010 광주아시아경기에서 단 한 경기도 치르지 않았지만 4강에 진출했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복싱은 4강에만 진출해도 최소 동메달이다.

성수연이 무혈입성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자복싱이 이번 대회 신설종목인데다 75kg급은 여

자 3제급 가운데 최종량급이어서 출전선수가 7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원수 부족으로 7명의 선수들은 8강으로 직행했고, 이중 1명은 대진추첨을 통해 부전승으로 4강에 진출했다. 7분의 1 확률을 뚫은 선수가 바로 성수연이었던 것이다.

성수연은 올해 선수생활을 시작한 신예다. 3월 전국여자자신인복싱대회, 6월 회장배전국여자복싱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달았지만 9월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라운드 탈락하며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이번 대회 목표도 4강이었다. 이제는 실력으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차례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QRING www.oqing.kr
NAVER에서 **오큐링** 을 검색하세요.

남자의 자존심, 건강한 삶을 위하여

특수공법으로 원적외선이 직접 투입된 미국의 인기제품 오큐링을 추천합니다.

“설마?” 하는 당신의 생각을 바꿔 드리겠습니다.

목걸이 할 때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나이가 들어 에너지가 부족하신분
- 혈관 정화와 해독에 도움을 주시니,
- 몸의 유연성을 증가시킵니다.
- 골프 시 유연성 향상으로 10~30야드 더 멀리~신
-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앉아계시는 모든 분들
- 고정된 컴퓨터작업으로 인한 피로와 근육의 뻣뻣함 감소

미국 본사에서 19개 나라에 7년째 판매되고 있는 OQ Ring은 힘이 약하고, 잘 시들며, 작고 빠른 분, 확대 수술 후 발기력이 약한 분께 도움을 주는 수제품입니다.

OQRing은 특수공법으로 원적외선을 투입한 티타늄과 토르말린보석(電氣石), 전자석의 자기장이 상호작용하여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수제품입니다.

오큐링은 착용한 당일 느낄 수 있으며 3~5일간 사용하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A~H까지 8가지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혈행(血行)은 혈류를 통한 산소공급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 본 제품은 의욕기기가 아닙니다.

14일간 사용해 보시고 이유없이 반품, 환불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oqing.kr

24시간 상담 : 1599-5901 010-6632-5901
농협 : 078-01-133555
예금주 : (주)메딕플러스